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금융감독원

보도 일시	배포시	배포 일시	2023. 3. 3.(금) 08:30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책임자	과 장	강영수 (02-2100-2950)
		담당자	사무관	김기훈 (02-2100-2953)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책임자	국 장	김준환 (02-3145-8020)
		담당자	팀 장	김은성 (02-3145-8030)
	은행연합회 은행전략부	책임자	부 장	박진우 (02-3705-5247)
		담당자	팀 장	김수연 (02-3705-5287)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방안

-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전세대출금리를 추가로 비교공시하겠습니다. -

주요 내용

□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추진합니다.

* 3.2(목)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실무작업반」 보고·논의사항

① 현재 공시중인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함께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추가로 **비교공시**합니다.

-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함께 공시**할 계획입니다.

②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 관련 금리**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합니다.(주담대·신용대출은 공시중)

③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하여 비교공시**할 계획입니다.

□ **금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추진 배경

□ 은행권은 '22.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 및 상세 금리정보를 비교공시중입니다.

○ 금리정보 공시 체계 개편 이후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일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예대금리차(%p): (22.1월) 1.80 → (23.1월) 1.63 / 가계예대금리차(%p): (22.1월) 2.26 → (23.1월) 1.64

※ '22.7월,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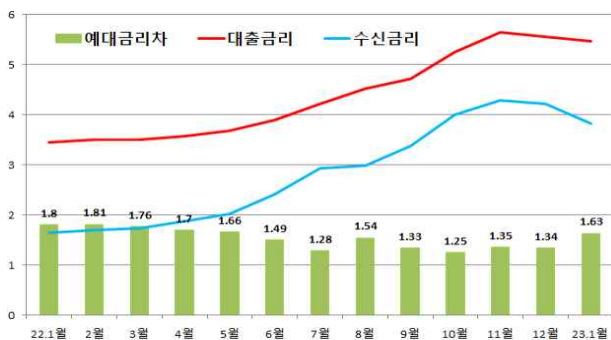
- ① 전체 은행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및 공시주기 단축(3개월 → 1개월)
- ② 대출금리 공시기준 변경: “은행 자체등급” → “CB사 신용점수”
- ③ 은행별 예·적금 상품의 신규취급 평균금리 비교공시
- ④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및 금리 관련 내부통제 강화

□ 다만, 공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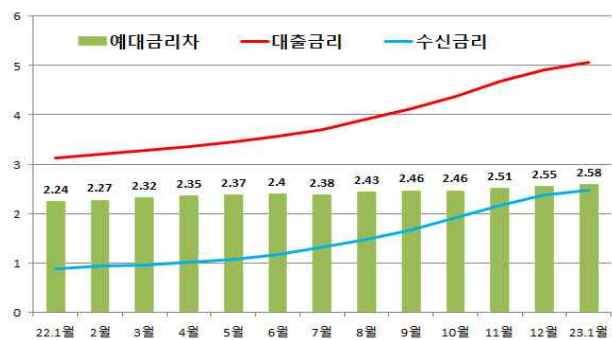
* 은행권 당기순이익(조원): ('19.) 13.9 → ('20.) 12.1 → ('21.) 16.9 → ('22.) 18.9(속보치)

○ 특히,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미공시)가 지속 증가('22.1월: 2.24%p → '23.1월: 2.58%p)하고 있으며, 전세대출금리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일부 금리정보도 공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 신규취급기준 예대금리 추이(% , %p) >



< 잔액기준 예대금리 추이(% , %p) >



➔ 은행권 경쟁촉진 및 소비자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공시 등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를 추진합니다.

2.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안

<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향 >

- ①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 ②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주담대, 신용대출은 공시중)
- ③ 가계대출금리 공시 세분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④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 신설

1]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 (현황) '22.7월부터 은행별 최근 금리동향을 보여주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중
- (문제점)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되지 않아 은행권 경쟁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 * (한국은행) 전체 은행을 통합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만을 매월 공시중(은행별 x)
- (개선안)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함께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
 -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
 - ※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와 동일하게 산정 → 신규취급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불예금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포함

2]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

- (현황) 가계대출의 경우 주담대,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하여 공시
- (문제점)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대출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 (개선안)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

<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현황 >

The screenshot shows a web interface for selecting banks and filters for home loan interest rate comparison. At the top, there is a grid of 20 checkboxes for various banks: 전체,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 와수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Below this is a date selector set to 2023-02. A red box highlights the '대출종류' (Loan Type) filter, which includes options for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Selected),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일반신용대출', and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At the bottom, the '상세구분' (Detailed Category) filter is set to '대출금리' (Loan Interest Rate).

③ 가계대출금리 공시 세분화: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현황)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는 금리를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하여 공시중
- (문제점) 전체 가계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정보가 세분화되지 않아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 등에 대한 확인, 비교가 어려운 상황
 - * (예) 금리수준이 유사하더라도 A은행은 조달비용(기준금리)이 높은 반면, B은행은 조달비용(기준금리)은 낮으나 가산금리가 높을 수 있음
- (개선안) 은행별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로 세분화하여 비교공시(신규취급액 기준, 잔액 기준 공통)

④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 신설

- (현황) 매월 은행별 금리가 변동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변동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되는 상황
- (개선안) 은행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예: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단기 조달 비중 증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 신설

<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안 요약 >

	신규취급액 기준			잔액 기준		
	월별 공시	은행간 비교	은행별 시계열	월별 공시	은행간 비교	은행별 시계열
대출합계	○	○	○	X	X	X
가계대출	○	○	○	X	X	X
대출유형별 (주담대·신용) 세부금리 (기준/가산/우대)	○	○	○	X	X	X
(전세대출)	X	X	X	X	X	X
대출 전체 세부금리 (기준/가산/우대)	X	X	X	X	X	X
기업대출	○	○	○	X	X	X
예금금리	○	○	○	X	X	X
예대금리차	○	○	○	X	X	X

※ (음영부분) 현재 미공시 → 금번 방안에 따라 7월 금리정보부터 공시

3. 향후 계획

- 금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